

귀촌생각

아침 열매



박찬규
진이찬방식품연구
센터장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고향이 아닐까? 꼭 인간간의 회귀본능을 논할 필요 없이 어릴 적 추억이 가득 배어있는 고향생각은 누구나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향을 떠올리게 되고 귀농·귀촌을 생각하게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누구나 힘들게 살던 시절이라 역척같이 일하고 한결같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그 시절에는 농촌에서 살고 싶어도 소일거리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로 서울로 끝없이 이동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님의 등에 떠밀려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수가 본인의 의지로 농촌을 떠나다보니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다. 월급이 적어도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기위한 몸부림으로 60년대 후반부터 도시로 이어진 유동인구는 끝없이 농촌의 인구감소를 가져오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약 4.3%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표현하면 4.3% 인구가 95.7%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농촌의 인구는 해가 갈수록 매년 줄어 들고 있고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초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다보니 농촌의 활력은 해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는 추세이다.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섣달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가족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고향에 내려오면 원하는 일거리를 찾기 어렵고 농사일은 수익이 낮은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요즘은 농촌 마을마다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외국인들이마저도 더 좋은 근무환경을 찾아 밤낮을 싸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농촌에서 농사일에만 평생을 바쳐온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힘에 부쳐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일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영향으로 곡물의 생산이 줄고 식량이 무기화 되고 있어 정부도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 도소매, 서비스, 음식업 등 모든 업종이 판매가를 정할 때에는 고정자산 투자비를 인정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계산하여 원가 계산을 한다. 그러나 농부들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는 토지 등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논·밭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농지 구입비용이 늘어서 고정자산 투자비를 계산해서 수매가를 결정했다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다. 수요와 공

급이론으로 미루고 특하면 가장 쉬운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을 낮추어 버린다. 아울러 농촌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기회비용을 적용해서 인정해주는 데도 인색하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7~8월에 집중되어 소양강댐 같은 대규모 시설이 홍수를 막아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댐에서 하는 홍수 조절기능은 불과 20%를 넘지 못한다. 대부분의 홍수는 산림과 농촌의 논에서 막아주고 있으며 한여름에 자라는 벼는 산소공급원으로 손색이 없다. 이제는 농부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부들에게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계산해주어야 한다. 농민수당 몇 푼으로 농촌을 살리겠다는 근시안적 사고는 내려놓아야 한다. 식량을 포함한 자원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은퇴자들이 고향을 찾아 귀촌할 수 있도록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정당한 수익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건을 만들어주면 은퇴한 사람들이 알아서 귀농·귀촌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희생만 강요당한 농민들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 쉬운 농산물 수입정책 말고 정부가 정당한 농산물 가격을 책정하고 보듬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선순환 효과로 은퇴 이후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社說

넓은 도심 지하시설물 이대로 놔둘 텐가

잇따른 사고로 주민안전 위협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잇따른 매설관 파손과 누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 2호선은 10m 안팎까지만 땅을 파는 '저심도 공법' 탓에 지하 곳곳에 거미줄처럼 매설된 상·하수도관과 가스나 전기 등 관련된 사고 위험성이 높다. 언제 어디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시작한 뒤 지난 4월 말까지 상수도관 파손과 누수 등으로 인한 부담금 부과 사례가 26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 기간 총 4만4000톤 규모의 수도물이 유실됐다. 특히 올해만 상수도관이 10차례 파손·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잇따른 사고의 대부분이 넓은 관로와 정밀 도면의 오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지난 13일 간담회를 갖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중 상수

관로 파손에 따른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심도에서 공사를 할 경우 지하 시설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고 예방의 첫 걸음이다. 하지만 지하 상수도관의 매몰 지도가 위치가 다르고 관마저 낡아 있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의 구도심은 지하에 상·하수도관과 가스관, 전기선 등이 이리저리 뒤얽힌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한 지하 정보에 의존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대형 참사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광주시의회도 1995년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참사'처럼 가스관 접촉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꼬리를 무는 지금의 잦은 사고는 대형 재난의 전조일 수 있다. 광주시는 2호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수도관을 비롯해 가스관과 전기 등 지하에 얽힌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정확한 지하 지도도 제작해야 한다. 그것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 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소아암환자 지원 이젠 바뀌어야 할때다

'산정특례' 5년 너무 짧아

소아암은 영유아 시절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신체기성장하지 않았다 보니 치료 자체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은 더욱 힘들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아암 전문의는 광주 0명·전남 3명이다. 전남에 있는 3명의 전문의마저도 화순전남대병원에 몰려있다.

이때문에 지역 소아암환자 상당수가 경제적·체력적 부담을 무릅쓰고 '상경치료'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부모들은 아이가 치료 받을 동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제공하는 10평 남짓한 좁은 쉼터에서 여럿이서 머물지만, 이용 가능 일수가 한 달 20일로 제한돼 있다. 남은 10일은 친척 집이나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머문다. 통상 1년 정도를 이런 식으로 보낸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통원치료가 남아 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2주에 한번씩 서울에 올라간다. 새벽에 갑자기 열이 라도 오르는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부

라부라 첫 기차를 타고 상경해야 한다. 치료가 종료돼도 끝난 게 아니다. 대부분의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은 후유증을 앓게 된다. 성장이 멈추거나, 관절병, 호르몬 이상, 학습·인지 능력 저하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심하게는 장애등급을 받기도 한다. 운 좋게 후유증이 발병하지 않더라도 재발 우려로 인해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 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산정특례 제도의 기한은 '5년' 까지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대해 본인 부담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이 '5년'이라는 기한은 성인 기준이다. 소아암은 성인 암과 달리 치료 기간이 매우 길고, 30~50년은 추적 관찰해야 한다. 산정특례의 '5년'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복지는 과해도 안되지만 부족해선 더욱 안된다.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산정특례를 연장해 주어야 한다. 저출산 시대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어른들이 돌봐야 한다. 그게 기성세대들이 할 일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법원 출석을 마치고 인근 레스토랑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불법 기밀 반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 마이애미=AP/뉴스시

서석대

기원전 5000년 전 인간의 음식이 업그레이드 된 데는 소금의 역할이 컸다. 물고기를 잡아 배를 가른 뒤 소금으로 간을 하고 저장하는 염장법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3000년 전 이집트 벽화에는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은 뒤 배를 가르고 소금을 절이는 염장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소금으로 간을 하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았던 거다. 미이라를 만들때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했다. 소금이 인류 최초 방부제로 쓰였던 것. 피라미드 축조 때도 염장한 생선을 인부들에게 나눠줬다는 기록도 있다.

시칠리아 등 고대 지중해 국가들도 염장기술을 바탕으로 제국을 유지했다. 교역품목에는 염장생선이 빠지지 않았다. 당시 인기품목은 염장참치였다고 한다. 참치알, 참치 허릿살, 참치 심장도 최고 제품으로 꼽혔다. 그 곳에는 참치 관련 지명도 많다. 유럽인들도 생선염장을 만들어 먹었다. 스페인의 참치염장, 스웨덴의 청어염장은 지금까지도 최고 음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소금에는 천일염만 있는 게 아니다. 암염도 있다. 암염은 얇은 곳에서부터 최대 300m의 땅 속에 매장돼 있다. 유럽과 미국 등지의 폐쇄된 분지나 히말라야 산맥 인근에서도 채취된다.

몇년 전 독일 취재를 갔다가 암염을 맛본 적 있다. 더 정확한 암염으로 요리한 음식을 먹어봤다. 프랑크푸르트 어디쯤 식당에 들어가서 먹어본 음식은 무척이나 짭짤했

소금

다. 소금을 많이 뿌려 그랬나보다 했는데 다른 음식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빵은 물론 치즈, 국물에서도 쓴맛이 느껴질 만큼 짰다. 지하에서 오랫동안 숙성됐기 때문인가보다 라고 위로하며 최소한의 국물만 떠먹었던 기억이 난다.

일본이 끝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전남지역 어민들도 당장 수산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정부와 일본측에 방류 중단 촉구에 나섰다.

더 큰 문제는 바닷물로 만들어 내는 소금생산 여가들에게도 발달의 불이 떨어졌다. 전남 861곳 중 신안(749곳), 영광(77곳), 무안(16곳), 해남(10곳)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목포(4곳), 진도(2곳), 순천과 보성, 완도 각 1곳에서도 만들어내고 있다. 전남 천일염 생산면적 2588ha에서 지난 2021년 26만3650톤, 지난해 23만9487톤의 소금을 생산해 냈다. 전남지역 생산업체는 전국의 93%를 차지한다.

어느 시민의 말처럼 "바다생선이나 해산물은 사먹지 않으면 그만이었지만 요리에 들어가는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는 탄식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는 와중에 정부 고위직 관계자는 국회에 나와 "정제할 물이라면 당장 마시겠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일본 정부에 "중단하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국민들 더러 "괜찮으니 걱정말라"고만 하는 이 상황이 도통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박간재 전남취재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